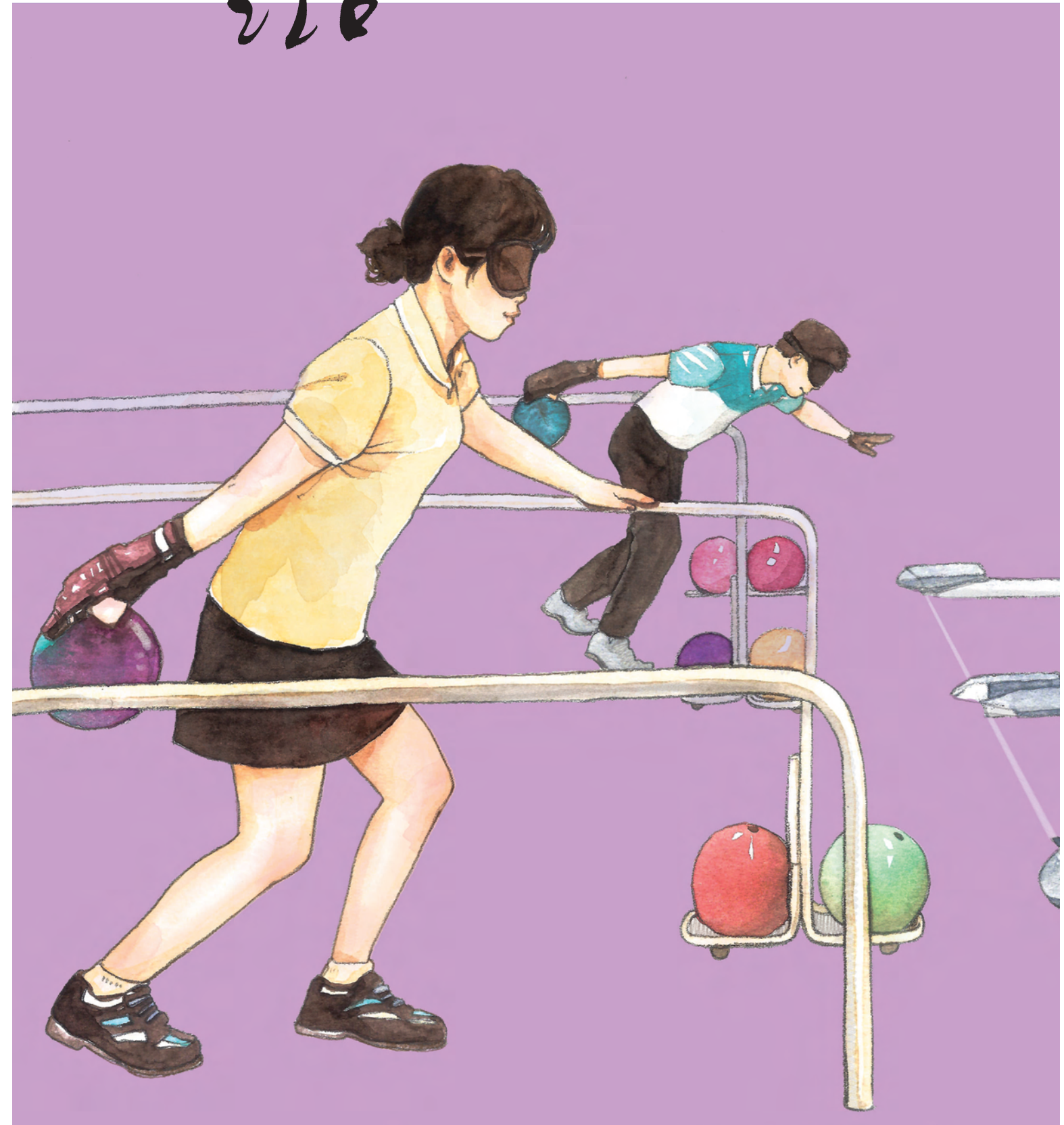


빛을 주는 시각장애인의 실로암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아이티에 세아를 짓다 학교를 짓다 희망을 짓다

세아상역은 아이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세아학교'를 건립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아상역



미국 타임스퀘어 뉴스 전광판에 CSR 활동 소개



WTO 주최 Aid for Trade에서 CSR 모범 사례로 초청



아이티 세아학교(S&H School)



세아학교 교육 모습



현지 의료봉사활동 지속 전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가보지 않은 쪽이
더 나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인다.

하지만 여행을 길게 하다보면
어떤 나쁜 길도 항상 나쁘지만은 않고,
좋은 길도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은 이어져 있다.

_홍은택 <중국 만리장정> 中에서



제호 격월간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6년 1월 30일 통권 123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배지혜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11+12
November December

Contents



04 포커스
'2015 실로암 감사의 밤' 열려



06 새소식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종 개발



08 희망나눔
2015 수료생 인터뷰
정혜경 님, 황은별 님, 김영민 님

11 사랑나눔
오비맥주(주)

12 해피스토리
사진으로 만나는 2015년 11월~12월 사업 현장

16 미리보기
2, 3월 행사 안내

17 나눔플러스
후원안내

나눔을 잇다, 세상을 잇다 '2015 실로암 감사의 밤' 열려



'YOU ARE THE HERO' 당신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5년 '감사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부와 2부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나눔을 잇다'라는 주제 아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해외지원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초청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은 100여 명. 행사 시작과 동시에 무대 앞 스크린을 통해 2015년에 진행되었던 봉사 및 후원 활동이 담긴 영상이 펼쳐졌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용자들이 직접 전한 메시지가 영상에 담겨있어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자를 통해 일 년간 진행된 굵직한 사업들이 소개되었으며, 이어서 감사한 마음을 담은 상패와 상장 전달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로는 류홍규 님, 정막녀 님, 그리

고 향군청년단, 서울남부교도소 눈빛나눔봉사단이 선정됐으며 우수 후원단체로는 세아상역(주), (주)한샘, (재)성주재단, 한국 필립모리스(주)가 선정되어 감사패 및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상장을 전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날 우수자원봉사단체로 참석한 서울남부교도소 눈빛나눔봉사단은 "지난 3년간 전자도서제작 봉사를 하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우리 안에 편견의 벽들이 많이 깨졌다. 앞으로도 나눔을 위한 일이 아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봉사와 후원이 혼한 일로 여겨지는 요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묵묵하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돌보는 분들을 보면 존경의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2015년 해외지원사업 결과보고

저녁 만찬을 끝낸 후 2부 행사인 '해외지원사업 결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해외지원사업의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올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움이 절실한 해외도상국인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장애인 지원사업을 펼쳤으며, 실로암안과병원과 협력하여 필리핀,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공화국에 개안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지원사업 영상이 2부 행사 시작과 동시에 상영되었으며, 이후 라오스와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 재활치료 지원사업의 자문위원이었던 대구대 조성재 교

수는 "실로암복지관의 해외지원사업은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도국 스스로 자립하여 장애인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필리핀,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공화국으로 의료지원사업을 펼쳤던 실로암안과병원의 최정범 부원장도 개안수술 지원사업을 펼치며 느꼈던 감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을 잇다, 세상을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5 실로암 감사의 밤. 2015년 한해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실로암 가족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 속으로, 그리고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것을 약속합니다.



정보접근의 장벽을 허물다

시각장애인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종 개발!



실로암 포네 화면



Lux DAISY 화면

아이프리 모바일 서비스 화면

본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2월 23일(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회에는 시각장애인 관련 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어플리케이션 개발 담당자들이 직접 시연을 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시연 직후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으며, 새롭게 개발된 어플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선 정보미디어팀 한승진 팀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등을 집중 제작해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진 만큼 시각장애인들이 모바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활용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그동안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스크린리더, 사이버도서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술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이들의 정보 활용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역시 꾸준히 보급해왔다. 이번엔 발표한 3종의 어플리케이션도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인 '실로암포네'는 (주)한샘의 후원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향후 시각장애인의 독서 생활을 보다 폭넓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종은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실로암포네', 'Lux DAISY'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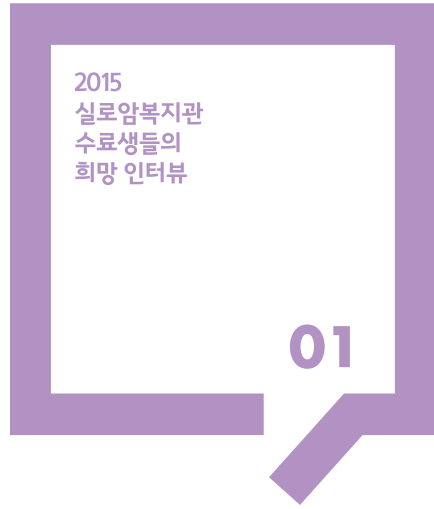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정보접근의 장벽. 오랜 시간 쌓여진 장벽을 한 번에 무너트릴 수는 없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안에 장벽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허물기 위해 꾸준히 움직인다면 정보의 시각지대라는 표현이 언젠가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이 독서 및 정보교류 활동을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종'을 개발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는 활동에 앞장 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ARS(전화 음성정보서비스)와 텔넷(문자중심방식)서비스를 통해 녹음도서 및 데이지도서, 정기간행물, 자립생활정보를 제공해왔는데요.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증가와 이들의 욕구를 반영해 모바일기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3종은 모바일용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인 '실로암포네'와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파일(데이지방식)을 읽을 수 있는 'Lux DAISY' 그리고 시각장애인 포털서비스인 아이프리의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전통음악아카데미 해금교실 수료생 정혜경 님(시각장애 1급)

“내 삶에 해금 하나 더했을 뿐인데”

실로암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나요?

2014년 겨울부터 해금교실에 참여했어요. 해금 소리가 너무 좋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쉬운 것 같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해금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전통 악기를 배울만한 곳을 찾기 힘들더군요. 간신히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를 찾아 의뢰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불편함이 컸어요. 그러다 실로암복지관을 알게 되어 반가움이 컸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떠셨어요?

40년 가까이 정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기의 모양은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단 두 줄로 여러 음을 내는 거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해금교실 강사님이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변종혁 감독님이셨어요. 시각장애인 단원들과 오랜 시간 공연을 해온 분이어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악기를 잘 가르쳐주셨죠. “악기를 잘 다루고 싶으면 그 악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남더군요. 연주자의 마음 자세를 먼저 알려주신 거죠. 기본 자세가 잡히니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쉬웠어요. 운지법은 강사님이 제 손을 직접 포개서

알려주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을 내려면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익힌 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해금을 배우기 전과 후,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2010년 RP로 시력을 잃은 후,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주저앉아 있 기에는 가진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생명의 전화’ 상담원이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2-3 번씩 전화 상담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해금을 배운 이후 상담이 더 깊어졌어요. 시력을 잃고 할 수 없는 일들만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해금을 배우고 나서는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 경험담을 상담을 통해 나누고 있어요. 삶의 어려움으로 절벽 끝에 서있는 사람들이 전화기 너머로 저를 통해 위로를 얻고, 그들을 통해 저 역시 힘을 얻고 있죠. 또 하나 달라진 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성가를 부를 때 반주자가 없으면 이제는 제가 대신 연주를 하곤 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됐죠. 이런 제 모습이 성당을 함께 다니는 시각장애인 친구들에게 도전이 되었는지, 악기를 배우겠다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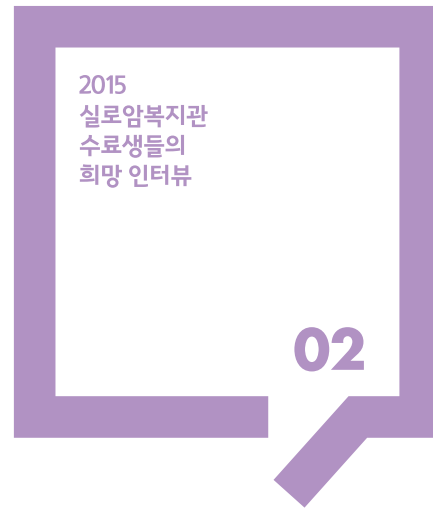
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어요.(웃음)

해금을 배운 후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2015년 11월, 실로암콘서트를 통해 그간 배웠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연주했는데 그 무대가 기억에 남아요. 가족,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하니 뿌듯함이 배가 되더군요. 자신감을 키워주는 실로암복지관의 배려 깊은 프로그램에 새삼 감동했어요.

앞으로의 꿈,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해금을 시작으로 악기의 매력에 눈을 뜬 것 같아요.(웃음) 올해에는 플루트를 배워볼 생각입니다. 중도 실명 후 세상에 나오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가족이었어요. 특히 자식들에게 낙담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더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첫 시작은 그랬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요. 해금을 비롯해,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일들에 하나 둘씩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자족을 배우며 살고 싶어요.



베이커리창업훈련 5기 수료생 황은별 님(시각장애 1급)

“희망을 굽는 시각장애인 제빵사”

실로암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나요?

작년 1월, 베이커리 창업훈련을 받았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 그게 처음이었죠. 시신경 손상으로 2013년부터 시력이 안 좋았지만,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2015년에 뒤늦게 장애 등록을 했어요. 그 후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고, 결국엔 좋아하는 일부터 배워보자는 결론을 냈어요.

특히 베이커리창업훈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평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요리사인 오빠의 영향도 있었죠. 무엇보다 앞으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려면 ‘자격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시력의 제한으로 베이커리를 배우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재료를 빨리 찾는 게 좀 힘들었지만, 훈련 때는 강사 분들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문제는 자격증 시험이었죠. 장애 등록 후 시험은 처음이라 대독대필로 진행되는 시험방식이 낯설었고, 어머니가 읽어주는 교재 내용을 들으면서 이론 공부

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결국 필기시험만 세 번 봤습니다.(웃음) 실기는 훈련장에 받는 교육이 큰 도움이 됐어요. 25가지 품목을 익혀야 했는데 집에는 재료나 도구가 충분치 않아서 훈련장에서 연습했던 공정과정을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결국 반 년 만에 목표했던 제과 제빵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실로암베이커리 생산기사로 일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시각장애를 갖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죠. 요즘엔 카페모아에서 판매되는 허니브래드를 주로 만들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브라우니나 케이크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훈련을 받을 때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훈련 때는 반죽을 하려면 필요한 밀가루나 다른 재료들을 챙겨주셨는데, 지금은 일터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하죠. 그래서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일 처음 소시지 빵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기억나요. 제 손으로 빵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종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최근에는 제가 만든 브래드를 카페모아 손님들이 많이 찾으실 때 보람을 느낀답니다.(웃음)

훈련을 받기 전과 후,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섣불리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은데 자격증을 따고나니 다른 것들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생긴 것도 큰 수확이예요.

앞으로의 꿈,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을 받을 생각이에요. 10년쯤 뒤에는 베이커리 강사가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단 순히 빵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제 삶으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공부할 것도 많겠죠? 1년 전만해도 내일이 막연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졌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망도 커졌어요. 하나둘씩 부딪히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싶어요.



2015
실로암복지관
수료생들의
희망 인터뷰

03



컴퓨터활용능력대비교육 수료생
김영민 님(시각장애 3급)

“내일을 향한 든든한 발돋움”

실로암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나요?
2015년 상반기에 자립생활기술훈련 기초과정을 수료했어요. 점자에서부터 보행, 컴퓨터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같은 해에 컴퓨터활용능력대비교육을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대비교육을 받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일을 하든지 컴퓨터 활용능력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각장애를 갖게 된 지는 15년이 넘었는데, 복지관을 찾은 건 작년 2월이 처음이었어요. 2000년에 장애등록을 했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을 따로 이용하지는 않았죠. 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점차 글 읽기가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으로 자립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초생활기술훈련을 시작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작년에 엑셀을 처음 배웠어요.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센스리더가 읽어주는 대로 움직여야 하니까 답답하고 어렵더라고요. 특히, 센스리더가 잘 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미리 인식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을 거 같아요.

몰랐던 걸 알아가는 재미가 컸어요. 무엇보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교체하며 자격증 관련 정보나 유익한 생활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제 삶이 많이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정안인들과 생활하다보니 힘든 점이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거나 숨겼던 부분이 있는데,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니 말도 잘 통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훈련을 받고 전과 후로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게만 보며 살아 왔는데, 복지관을 통해 신세계를 경험했죠.(웃음) 시각장애인 전용 물품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용 체중계,

시계, 점자카드 등을 구입할 정도였으니까요.

앞으로의 꿈,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올해 목표는 또다른 컴퓨터 자격증 취득과 점자 읽는 속도를 늘리는 거예요. 또 영어랑 악기도 하나쯤 배워볼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다보면 가고자 하는 길이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도전을 망설이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장애가 있든 없든 일단 세상 밖으로 나와 보면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 복지관에 와서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잔존시력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고, 자극도 받았습시다. 그러니 일단 부딪혀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사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까지.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첫 걸음을 떼는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비맥주(주)
Oriental Brewery Company

사랑도
나눔도
‘Just Do It’



오비맥주가 후원한 2015 실로암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클럽대회 단체 사진

한 사람의 꾸준함이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듯, 사회를 향한 한 기업의 꾸준함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장애인을 향한 사회의 인식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4년부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하고 있는 오비맥주. 착한 실천으로 세상을 향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오비맥주가 나눔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erviewee_홍보팀 임혜미 대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는 2014년부터 인연을 맺고 계신데요. 어떤 후원활동을 하셨나요?

오비맥주는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탠덤바이크, 등반대회 등 야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해왔는데, 실로암복지관과는 2014년 11월, 시각장애인 나들이를 후원하며 첫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당시 자원봉사로 영업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시각장애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에 전국 시각장애인볼링클럽대회를 후원하며, 시각장애인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게 즐기는 모습에 무척 뿌듯했습니다.

후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인식 중 바뀐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고 후원 및 자원봉사에 참여한 회사 임직원분들이 행사를 끝내고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운동 마니아가 정말 많고, 매사에 활력이 넘치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봉사를 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온다.” 사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곤 했는데, 매년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고민과 상관없이 저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온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활력이 없고,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시선이자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후원활동을 통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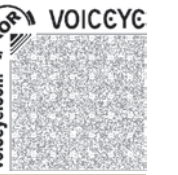
나눔 또는 봉사라고 하면 거창하고 규모가 커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정성에 더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돈을 이만큼 모으면 후원을 해야지, 혹은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봉사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비맥주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Just Do It!” 유명한 스포츠웨어 광고 카피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하고자 메시지 역시 가장 잘 담고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해보는 것. 그래서 나눔과 봉사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고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 바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응주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통로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재정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만나며 직접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것 같거든요. 실로암복지관의 시각장애인 이용자 분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만났던 시각장애인분들은 모두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고 있는 분도 있었고, 정안인 못지않게 여러 운동을 섭렵한 분들도 계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에는 제약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분들뿐 아니라 소식을 읽으시는 모든 독자분들도 2016년, 도전하며 성장하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01



02



03



05



04



06

01 제89주년 시각장애인 점자의 날 기념 국회 전시_ 11월 3일 ~4일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모티브로 시각장애인의 제품·교재·교구를 전시하고, 명함에 점자를 새겨주는 등 인식개선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02 관악구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 행사_11월 11일
낙성대공원 광장에서 관악구재가복지연합회 공동 사업인 '2015년 관악구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 행사가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관악구사회복지시설 14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03 베이커리 창업훈련 현장견학_11월 13일
베이커리 창업훈련 6기의 현장학습으로 2015년 서울 카페 쇼를 참관했습니다. 카페 베이커리 창업 정보를 알아보고, 시식하는 등 훈련생 모두가 높은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04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제4회 정기연주회_11월 14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국립국악원 예약당에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낯서에도 불구하고 650여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80분 간의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05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_ 11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축각교재 만들기'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KB국민카드 및 해피빈 측에서 9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수작업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축각교재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6 살아 숨 쉬는 역사이야기_11월 19일
서울맹학교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운현궁으로 역사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운현궁의 대문과 벽, 우물 등을 직접 만져보고, 조선시대 후기와 근현대사의 모습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7 시각장애인 병영체험_11월 24일~25일
문화체육지원센터는 11월 24일부터 25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에서 '2015 시각장애인 병영체험'을 진행했습니다.

08 보조공학기기 활용대회_11월 27일
2015년 실로암 보조공학기기 활용대회에는 총 20명의 시각장애인이 참가했으며 JAWS를 활용한 엑셀 문제 및 한글, 인터넷 검색 문제를 푸는 등 실력을 겨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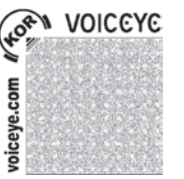
08



07



08



HEAL THE WORLD 일곱번째 '실로암 콘서트' 열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에서 2015 실로암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실로암콘서트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음악재활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꾸미는 무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여 음악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치유한다'는 뜻의 (Heal the World)를 주제로 선정하여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번 콘서트를 위해 플루트, 바이올린, 클라리넷, 밴드합주, 성악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으며, 무대 중간 중간 국악연주 등을 함께 진행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태어나 처음 플루트를 잡아 본 분, 열심히 배워 대학에 가고 싶다는 분 등 교육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갖고 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에게 콘서트 준비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하모니를 만들어 낸 시각장애인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12년 시각장애인이용음악재활센터를 설립, 음악재활아카데미와 전통음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성인 41개 반, 아동·청소년 60개 반을 운영하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9



10



13



09



11



14



15



15

- 09 유니버설디자인박람회 촉각교재 전시_ 12월 2일~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위크 2015 '유니버설디자인박람회'에 참여하여 3D촉지도와 촉각교구재 등을 전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 10 효명장학생 후원업체 (주)아모텍 성탄예배 참가_ 12월 8일
효명장학생의 후원업체인 (주)아모텍의 성탄예배에 초청 받은 효명장학생 노영서, 김지선 학생이 성탄예배에서 뜻깊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 11 재가시각장애인 온천나들이_ 12월 10일
지역사회지원센터는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 및 재가시각장애인들과 함께 2015년 마지막 야외나들이로 실로암사우나를 방문해 온천욕 및 찜질, 식사를 하며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2 제60차 취업자간담회_ 12월 16일
취업자간담회에는 현재 카페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참여해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를 견학하고,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바리스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3 CTS 생방송 <1004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 생명의 빛을>_ 12월 17일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위한 CTS 특집 프로그램 <1004명

- 의 시각장애인에게 새 생명의 빛을>이 CTS 스튜디오와 삼성동 코엑스 현장을 오가며 이원생계 되었습니다. 코엑스 현장에서는 모금활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이 펼쳐졌으며, 관현악인전통예술단과 조이풀중창단의 공연도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 14 2015년 송년회_ 12월 17일
지역사회지원센터는 180여명의 활동보조인들을 초대해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20일(일)에는 카페모아, 포장조립, LED 사업 등 근로장애인 및 직업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장애인 송년회를 가졌으며, 23일(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효명장학생 송년회를 진행,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15 행복한 크리스마스_ 12월 23일
올해도 어김없이 다섯 명의 산타가 시각장애인 가정으로 찾아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캐롤에 맞춰 춤을 추고,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폴라로이드로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 16 여성가족부 자원봉사 참여_ 12월 24일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화책 낭독봉사 및 대체도서 교열봉사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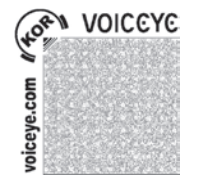
12



16



'실로암 전국시각장애인 볼링클럽대회' 개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하고 OB맥주, 코웨이, 미래에셋에서 후원한 "2015 실로암 전국시각장애인 볼링클럽대회"가 지난 12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워너스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한 전국 9개의 볼링클럽팀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 온 실력을 겨루며 스포츠인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이번 대회에서 스피드볼링클럽A팀(전석, 김남훈, 김현정, 김재철 님)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성적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부산시각 루비스타(공양식, 이승우, 주용환, 김현진 님), 수원핀클럽(남진일, 김정훈, 백용기, 유은혜)이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됐으며, 2위 팀에게는 상금 150만원과 트로피, 3위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각각 수여됐습니다.

시각장애인 볼링은 현재 패럴림픽(Paralympic)의 정식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칙 역시 일반 볼링 규칙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시각장애인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던질 수 있도록 가이드 레일이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실력을 겨루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었던 2015년 실로암 전국시각장애인볼링클럽대회.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체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경기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Program & Notice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카페모아 6호점 서울여성플라자 신규개소

카페모아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신규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여성플라자 내에 신규지점을 오픈합니다.

- 일 시 : 2016년 2월 1일(월)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 문 의 : 근로사업장 02-880-0580

스키캠프

대표적인 동계스포츠인 스키를 배움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2월 17(수)~19(금)
- 장 소 : 강원도 정선 하이원스키장
- 문 의 : 문화체육지원센터 02-880-0831

보조공학기기대여식

초, 중, 고, 대학 교육과정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학습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 시 : 2016년 2월 20일(토)
- 장 소 : 복지관 강당
- 문 의 : 정보활용지원팀 02-880-0534

중도실명인재활교육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점자, 컴퓨터교육과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의식을 고취하여 일상생활과 직업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 일 시 : 2016년 2월 22일(월)~6월 24일(금)
- 장 소 : 복지관
- 문 의 : 정보활용지원팀 02-880-0535

효명장학사업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성이 반듯한 시각장애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효명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일 시 : 2016년 2월 25(목)
- 장 소 : 복지관 강당
- 문 의 : 고용지원센터 02-880-0851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1회 필기시험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과 협력하여 관내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활용능력 정기시험 수험장을 개설하고 스크린리더와 확대프로그램 등의 편의사항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 일 시 : 2016년 3월 5일(토)
- 장 소 : 복지관 컴퓨터교육실
- 문 의 : 정보활용지원팀 02-880-0533

음악교육지원사업

다양한 음악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 서양음악프로그램 (피아노, 플루트, 우쿨렐레, 성악, 드럼, 보컬 등) 전통음악프로그램 (해금, 판소리, 가야금 등) 심화음악프로그램, 음악전자교실
- 일 시 : 2016년 3월 중(단, 심화음악프로그램은 2월 중)
- 장 소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 문 의 : 음악교육팀 02-880-0681~5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회화교실

초급 수준의 이용자를 위해 팝송을 활용하여 영어표현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 시 : 2016년 3월~7월
- 장 소 : 복지관 5층 외국어교육실
- 문 의 : 디지털도서관 02-880-0646

시각중복장애청소년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SeasonIII 'Mind up! grow up!'

시각장애와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을 수반한 시각중복장애청소년에게 장애로 인해 발생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부적응적 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 일 시 : 2016년 3월~11월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문 의 : 가족지원센터 02-880-0602

법률지원사업

법률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성법률봉사단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 시 : 연중
- 장 소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상담실
- 문 의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80-0811



November+ December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후원	실로암요양원후원	복지회후원	총액
11월		15,675,720	1,805,000	3,113,120	1,336,935	21,930,775
12월		25,755,800	1,655,419	5,171,531	1,595,361	34,178,111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강문창 강미숙 강미혜 강민석 강창구 강희원 고미미 고선용 고선화 고슬기 고지후 광정아 광현용 권성면 권수진 권승혜 권정훈 권정희 권태훈 권희정 김경국 김경애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동 김기순 김누리 김다혜 김도연 김동진 김명아 김무논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선 김민석 김민정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이 김선에 김선주 김신태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찬 김성화 김성훈 김세연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수연 김수정 김숙현 김순호 김양수 김영수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예은 김옥숙 김우도 김원봉 김유진 김유찬 김윤진 김은민 김은실 김인서 김잔디 김재민 김재성 김재환 김정겸 김정은 김종규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지혜 김진수 김태희 김혜인 김현순 김현정 김혜란 김혜민 김혜인 김호남 김호정 김효원 김희연 김희영 나가연 나민형 나병택 나서취 나만숙 남기운 남우현 남정환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중 도윤희 명태순 문소란 문정이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대삼 박도희 박문숙 박미량 박민규 박상도 박세근 박세희 박소정 박술인 박수호 박순이 박예지 박옥련 박용일 박은애 박정복 박종원 박지연 박지훈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박희경 방영애 배은정 배종석 배지혜 백순복 변종혁 봉하중 서성교 서원호 서의승 서희경 성지영 성지혜 손지애 손지영 송경원 송영화 송우정 송은숙 송은정 송제용 송효심 신덕수 신동선 신동화 신민호 신성만 신종현 신한나 신현수 신홍연 심관섭 심배식 심소현 심재민 심재숙 심주현 양관동 양민정 양지혜 양혜진 양호열 영경순 엄현희 염리라 오세용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하영 오한나 우재연 유미현 유지영 유지연 윤나라 윤대현 윤명현 윤보라 윤성재 윤소정 윤지현 윤진국 윤하영 윤혜연 이광성 이교순 이규성 이길원 이덕주 이동형 이동훈 이로서 이만승 이면우 이미영 이민기 이민환 이병재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진 이선아 이설한 이세희 이 송 이예성 이예일 이옥희 이요한 이운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용무 이인애 이재용 이재은 이정아 이정원 이정민 이정춘 이정현 이정화 이주호 이준승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훈 이진용 이진중 이진형 이찬선 이찬영 이창진 이창호 이태섭 이태준 이하영 이하민 이하연 이하현 이하정 임명숙 임수정 임은성 임중재 장석철 장성희 장수진 장용진 장은경 전경모 전아름 전영소 전정자 정갑수 정근우 정다운 정덕수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성민 정성수 정수광 정수진 정연상 정영임 정옥자 정은정 정종일 정지현 정지혜 정태준 정혜진 조건희 조남수 조동근 조미경 조봉래 조성재 조원영 조유진 조은일 조은진 조진만 주일수 주재은 천소영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두수 최병현 최승원 최윤옥 최재석 최중철 최찬삼 최태선 최 훈 하은성 하은주 하종백 하효선 한성희 한숙자 한승진 한영실 한은지 한재경 한재용 한순식 함오환 함주영 함지연 허권구 현지원 홍권용 홍예진 홍일선 홍정연 황소영 황수진 황순화 황정수 안무학교회 미래에셋 삼성증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서울맹학교 실로암안과병원 위워크 연신교회 OB맥주 인간문화재전통악기원 큰은혜교회 평광교회 한국장로신문사 한국주류산업협회 한미리 한화도탈 해오름교회 해피민 휘경교회

개인수술 후원

김광애 김애경 김혜순 박삼금 이동원 이상훈 정용택 정인영 정향산 황진숙 동부산교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실로암요양원 후원

권수진 김경애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말년 김무경 김병규 김병숙 김복휘 김신태 김영선 김유나 김유빈 김은철 김은희 김인경 김정숙 김중훈 김태연 김태용 김형도 김호직 박대삼 박성일 박은애 박주희 배지혜 서문선 성옥순 신동선 신성만 신재우 안정임 유경호 윤찬호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봉희 이수란 이숙경 이순희 이영태 이종열 이진용 장혜순 정혜용 조미경 조영순 조행금 지정규 최영훈 하영태 한근규 함은창 함지영 함현식 허서영 광적파출소 실로암안과병원 씨제이프레스웨이 알파문구 코리아미드 해피민 효명교회

복지회 후원

권영진 금옥연 김경애 김남식 김미경 김미라 김미혜 김민주 김민희 김서진 김성훈 김아름 김유빈 김재우 김정래 김정옥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노하영 노현기 맹석재 박상근 박성철 박옥희 서범수 신영실 심아름 우민재 윤재훈 이도건 이민정 이상정 이성표 이윤아 이창현 이하나 이행철 이혜현 임 영 임영희 정대영 정정자 조경자 조행금 최동익 최상국 통일교회 한미지 허승희 홍성현 황윤희 카페모아 해피민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